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카드 자세히 보기



필수 안내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저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66**
2024. 05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김명진 회장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
하민욱, 최슬잎 선수

Sports is Busan
- 2024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05 Vol. 66



발행일 2024년 05월 16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66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B BUSAN HEROES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김명진 회장

08
부산체육 꿈나무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12
부산체육 발자취
한국 요트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민

16
부산체육 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
하민욱, 최솔잎 선수

S SPORTS SERVICE

20
Sports is Busan
- 2024 부산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24
스포츠 파노라마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미리보기

28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G GOOD LIFE

30
스포츠 라이프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

34
스포츠 기고·부산스포츠 기자단
-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는
'부산체육사랑카드'
-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검도대회

38
스포츠 PLUS+
스포츠맨십으로 즐기는 라운딩, 골프

42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Are You Ready? :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
국립부산과학관

44
라이프 업그레이드 [삶]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 이케가야 유지

S FOR SPORTS CITY

46
BSC 뉴스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생존에서 재활까지 남녀노소 만능 운동 수영

부산광역시수영연맹 회장 김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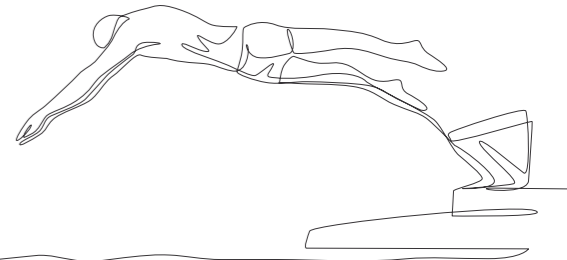
○

해양대학교 졸업, 5년간의 선박 생활, 선용품 제조사 운영...

수영선수 못지않게 물 가까이 살아온 부산광역시수영연맹 김명진 신임 회장.

취임 초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직실내수영장 내 부산수영연맹 사무실을 찾았다.



물 곁에서 30년, 이제 부산 수영에 봉사

지난 2월 부산광역시수영연맹에 김명진 회장이 취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직무를 시작한 김 회장은 이전부터 수영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지 않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물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영도에서 근무할 적 작업 중 급류에 휩쓸리는 아찔한 사고를 겪기도 했던 만큼 누구보다 수영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그때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이후부터 수영이 건강증진뿐 아니라 생존에도 꼭 필요한 운동임을 알게 된 겁니다.”

수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비춘 김 회장. 평생을 물 곁에서 인생을 보낸 그는 부산수영연맹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오히려 고민이 많아졌다.

“부산의 수영 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수영인에 대한 지원과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걸 알게 됐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수영을 매개로 후원, 자체 수익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일도 김 회장은 부산시 각 구 관공서와 유관 단체, 지역 기업들과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등 그의 하루는 ‘부산수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30년간 사업가로 일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수영연맹이 가진 자원과 민·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상할 계획을 전했다.



사진 부산광역시수영연맹 제공





수영을 향한 부산수영인의 진심

김명진 회장은 취임 후 부산수영연맹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수영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수영연맹 가족들에게 신뢰를 표했다.

“수영이란 운동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산의 수영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염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추켜세워 주시지만, 사실 그게 다 같이 일하는 수영연맹 가족들 덕분입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구성원들 간에 소통도 원활하고 싸우는 일 없이 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임 이후 ‘제3회 부산시장배 전국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김 회장은 모든 부산수영인들의 한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번에 개최한 대회는 선수들과 그 가족들이 사직실내수영장 객석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복도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기뻐했습니다.”

지난 4월 개최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부산 선수들이 수영부문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교적 인프라 구축이 잘 된 수도권 다음 가는 순위를 차지한 것은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수영연맹에서는 대회 유튜브 중계와 상금 수여 등을 통해 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나아가 생활체육 수영 발전을 위해 전국생활대축전 출전에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수영인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한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부산은 수영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부산지역 곳곳에 수영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수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 강좌를 듣기 위



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여섯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김 회장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수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소임이라고 밝혔다.

“수영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걷고 뛸 때마다 건보로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시절엔 체

력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는데, 점차 체육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체가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문체육 수영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름이 알려진 선수는 후원을 받아 훈련도 하고, 대회도 참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량이 올라오지 않은 무명 선수들은 활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은퇴 후에는 마땅한 진로를 찾지 못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체육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서 모든 선수들이 후원받을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고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일하며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수영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순회지도자 신규 채용 및 다이빙 지도자 영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중구청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수선수가 확보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전문체육 선수들이 더욱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지원금은 물론 전인적 지도를 위한 우수지도자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아시아수영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아시아 수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 마련은 물론 해양도시 부산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림도 그리고 있다. 끝으로 김명진 회장은 연맹 회장이기 앞서 수영인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부산광역시수영연맹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수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전력, 온몸을 던져
질주, 승리를 향해!**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골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에너지 속, 서로 호흡하며 원팀의 면모를 자랑하는 최강전력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영도 앞바다를 꼭 닮은 푸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단단한 호흡이 만든 탄탄한 원팀

부산 럭비의 자존심, 부산체고 럭비부가 2024 전국춘계럭비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 한 해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팀의 중심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우였다. 모든 선수들이 단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꾸어 주었고, 덕분에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거머쥌 수 있었다며 전준영 부감교사는 말했다.

“또한 부산체고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토너먼트 경기부터 참석해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부산체고 모두가 우승을 향해 한마음이었죠. (웃음)”

2014년부터 럭비부를 지도하고 있는 김중수 지도자는 자신도 선수 때 해내지 못한 일을 이루어낸 럭비부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대회 중 4강전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3명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핑하며 끝까지 뛰어줬거든요. 참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최근 부산체고 럭비부는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동력으로 ‘기본’과 ‘조직력’을 꼽았다.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다음 동작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더불어 럭비 종목은 구기 종목 중 인원수가 가장 많은 만큼 개인의 조직력이 조금만 틀어져도 틈이 생기고, 그 틈 하나로 상대방에게 점수를 빼앗기게 됩니다. 부산체고 럭비부를 지도하면서 기본기와 조직력에 대해 무수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체고 럭비부 선수들의 강점은 ‘스스로’하는 팀 분위기다. 럭비가 좋아서 모인 선수들이 훈련 시간 이외에도 스스로 연습하러 가는 등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당연지사인 셈이다.

창의적 훈련에서 피어난 최상의 기량

부산체고는 전국체전 성적에 따라 동계강화훈련 기간에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럭비부는 2022 전국체전 우승 및 2023 전국체전 3위를 달성하면서 오로지 학교 자체 경비와 부산광역시럭비협회의 지원으로 일본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2주간의 전지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 지도자도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준영 부감교사는 당시 일화를 전했다.

“일본 RKU(유통경제대)와의 전지훈련을 통해 선진 럭비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우리 부산체고 럭비부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죠. 지도자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고 선수들은 훈련 포인트를 숙지하여 훈련에 참여하다보니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영 지도자는 선수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는 ‘창의적 훈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럭비를 함에 있어 왜 하는지, 어떤 플레이가 좋은지, 그렇다면 선수가 원하는 플레이는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플레이할 때 선수들의 기량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수상내역

- 2020 제2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우승
- 2021 전국춘계럭비리그전 준우승
- 2022 제75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우승
- 202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3위
- 2024 전국춘계럭비리그전 우승

선수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최상의 훈련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는 앞으로 남은 대회와 내년 2025 부산전국체전에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선수들이 럭비를 즐길 수 있는 곳, 럭비를 사랑하는 모든 학생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과 조직력, 스스로와 창의적 훈련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는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탄탄한 전력과 무한한 질주로 그라운드를 누빌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Mini Interview

부산체고 럭비부는 2010년 부산남고에서 부산체고로 팀을 이관하여 창단했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시체육회, 부산럭비협회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으로 전국 최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준영 부감독을 비롯하여 국가대표 출신 김종수 지도자와 장준영 지도자가 똘똘 뭉쳐 학생들과 소통하며 훈련에 매진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 경기마다 대회장을 찾아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열정도 우승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경기가 끝나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럭비'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매 경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인성을 겸비한 스포츠 인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국종 교장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선수 Interview

- ① 나에게 럭비란? / ② 올해 목표는? / ③ 포부 한마디!



전수형 (주장)

3학년 / 포지션 : 풀백

- 1 '친구'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때 히로애락 감정을 럭비를 통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 2 앞으로 남은 모든 대회에서 우승해 전관왕 하는 것입니다.
- 3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부산 럭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배동륜 (부주장)

3학년 / 포지션 : 1번 프롭

- 1 '중독'입니다. 운동할 땐 정말 힘든데, 쉬는 날이 되면 몸이 절로 운동장을 향합니다.
- 2 팀 목표는 남은 대회 전관왕, 개인 목표는 원하는 대학 모두 최초 합격자로 뽑히는 것입니다.
- 3 부산체고를 만나는 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겠습니다!



김민찬

3학년 / 포지션 : 3번 프롭

- 1 '매운 음식' 같아요. 맵지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것처럼, 자꾸 럭비를 찾게 됩니다.
- 2 좋은 성적을 거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 3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부, 남은 대회 모두 전관왕 하자!

전준영 부감독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러거 (rugger, 럭비인)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트 하겠습니다. 럭비부 선수들, 사랑합니다!

김종수 지도자



자만하지 않고 훈련 경기에 임해 주길 바라며, 늘 파이팅하는 부산체고 럭비부 모두 고맙대!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준영 지도자



올해 첫 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둬 고맙고, 아직 많은 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전국체전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분위기 이어가길 바랍니다!

한국 요트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민

글. 원성만



<부산체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체육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부산체육 발자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부산체육 발자취>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50주년에 발간된 <부산 체육 50년사>에 이어 부산체육의 서사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 체육의 영광과 감동, 희망을 만들어낸 우수 선수와 체육인의 발자취를 정리한다.



요트는 올림픽 종목 중 몇 없는 해양종목이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 채택됐고, 기상악화로 실시되지 못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올림픽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여러 번의 레이스로 종합 점수를 내는데 배와 돛의 크기, 인원 등으로 종목이 세분화된다. 그 중에서도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만 타는 1인승 딩기요트 ILCA 7급(레이저급)의 하지민 선수(해운대구청)는 4회(2008, 2012, 2016, 2021년) 연속 올림픽에 참가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에서는 한국 요트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진출했으며, 최종 순위 7위를 기록해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 올림픽 최고 순위(13위·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를 경신했다. 이번 제33회 파리 올림픽에도 참가한다. 5회 연속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광의 대열에 오른다. 또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레이저 종목 금메달 3개를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땀다. 전국체육대회는 2022년까지 12연패를 달성했다. 2007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요트 선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1, 2차 레이스에서 조금 주춤했어요. 2위와 3위를 기록했죠. 8차 레이스에서는 실수로 부정 출발을 범해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 계속 선두를 굳히다가 11차 레이스에서 3위, 마지막 12차 레이스에서 다시 1위에 올라 2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을 지켰죠.”

고교 3년 때 두각 드러내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죠. 초등학교 5학년 3월에 여수에서 열린 전국 봄철요트대회에 참가했는데, 안개도 끼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배가 제어가 안 되고 떠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주위에 사람들도 안 보여서 조금 무서웠지만, 여수는 좀 갠 바다라서 반대쪽으로 떠내려가면 그래도 육지가 있겠거니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민 선수가 요트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형이 어린이 요트 클럽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요트 타는 걸 보면서 매력에 빠졌다. 마침 부산광역시요트협회에서도 유소년을 키우려고 재원을 많이 투입하던 때였다. 그는 부산광역시요트협회가 1999년에 창립한 ‘부산 주니어 세일링클럽’ 출신이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 요트 클럽이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연이어 우승했던 하지민 선수가 요트에서 두각을 드러낸 건 고교 3학년 때다. 해군이 주최하고 3함대 사령

부와 대한요트협회가 주관했던 2007년 ‘제12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에서 남자 레이저급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남자 레이저급에서는 부산 양운고등학교 3학년생인 하지민이 김정곤(경북도청), 김호곤(거제시청) 등 쟁쟁한 실업 ‘형님’들을 제치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민은 벌점 18점으로 레이스를 끝내 김정곤(25점) 김호곤(27점)을 앞섰다. 박홍준 대한요트협회 사무국장은 “하지민의 실력은 주니어에서는 세계 10위권이고 앞으로 성인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4.10.>

여세를 몰아서 2007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열린 ‘2007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고, 그해 1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세일 브리즈번 2007 국제요트대회’ 레이저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dingi 종목에서는 국내 최고 성적이었다.

혼자 사색하기 좋아하는 ‘바다 위의 전략가’

요트는 바다 조류와 바람 방향 등을 잘 살펴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기이다. 바다의 환경과 변화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한다. 또 상대방의 위치와 속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해 최대 속도를 내야 하는 전략 싸움이기도 하다.



- 2004년 2004년 제주 아시아태평양레이저챔피언십 우승
- 2007년 세일 브리즈번 국제요트대회 레이저급 준우승
-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레이저급 금메달
-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레이저급 금메달
- 2016년 요트 레이저유럽선수권대회 남자 은메달
-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레이저급 금메달
-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ILCA7급 은메달

하루 만에 경기를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여러 차례 시합을 한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긴장과 자신감을 가지고 매 경기마다 실수 없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성과를 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사색을 즐겼어요. 요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매력적이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겨내야 할 숙제가긴 해요.”

흔히 요트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한다. 하지민 선수는 그런 세속의 호불호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또 선배 선수로서 요트 종목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전문 선수를 하려는 후배들이 많이 줄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요트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과 기업의 관심과 지원·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죠. 또 수영 요트경기장 주변에 고층 건물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람이 옛날처럼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요트는 바람에 의존하는 스포츠잖아요? 바람이 깨끗하게 잘 불어야 하는데, 예전보다 좋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민 선수는 경기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선수다. 아시아에서 하지민을 대적할 상대는 찾기 어렵다. 길이 4.23m, 너비 1.37m, 세일 면적 7.06㎡, 선체 무게 59kg. 1인승 요트 ILCA 7(레이저급)에 몸을 실은 그는 광활한 바다와 바람을 가르며 ‘월드 클래스’로 달려간다.





행복과 사랑을 안겨 준 포켓볼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 **하민욱, 최솔잎 선수**

하민욱, 최솔잎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의 유일무이한 복식팀이다. 부산팀에 몸담은 지 8년이 넘는 하민욱 선수와 2년 정도 됐다는 최솔잎 선수. 부산팀으로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전국 대회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포켓볼 최강 부부'로 불린다.



사진 대한당구연맹 제공



사랑은 포켓볼을 타고

“처음에는 아내가 부산팀으로 이적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는 운동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저희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믿어주셨고, 그 믿음 덕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욱 선수와 최솔잎 선수의 인연은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가 고향인 하민욱 선수는 제주팀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고, 최솔잎 선수는 서울에서 실력 있는 동호인 선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제주팀이 그녀를 선수로 영입한 것이다. 연습 공간이 필요했던 최솔잎 선수에게 당시 당구장에서 일하고 있던 하민욱 선수가 자신이 일하는 당구장에서 연습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 공간에서 훈련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 두 사람은 선배에서 연인으로 발전, 2016년에 부부가 되었다. 제주도에서 그들이 보낸 시간은 아주 짧았는데, 복식팀으로 두 번 정도 대회에 출전한 게 전부였다. 성적은 괜찮았지만 제주팀의 상황상 최솔잎 선수는 광주로 트레이드되고, 하민욱 선수는 부산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몇 년 후 최솔잎 선수가 부산팀으로 합류하며 다시 한 팀이 되었다.

부부가 한 팀이니 당연히 호흡이 잘 맞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경기 스타일이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합을 맞춘 1년 동안 꽤 애를 먹었다. 하민욱 선수는 고민 끝에 최솔잎 선수에게 한 번만 자신의 스타일대로 따라와 달라 부탁했고, 최솔잎 선수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한 몸 같은 호흡을 자랑하게 되었다.

“부부끼리 뭘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투고 싶지 않아서 제안을 받아들였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죠. (웃음)”

그렇게 두 사람은 전국체육대회 당구 종목 포켓볼 혼합 복식 2연패(2022, 2023), 대한체육회장배 포켓9볼 복식전 3연패(2020~2022) 등의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포켓볼 최강 부부'가 되었다.

재미, 실력과 열정으로 이어지다

하민욱 선수는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때 우연히 동네 형들을 따라 간 당구장에서 당구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반해 당구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스무 살에 그의 스승인 김홍섭 프로를 만나 캐롬 3쿠션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스물네 살 무렵, 종목에 약간 회의를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3쿠션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골방에서 내기하는 종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주변에서 지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당구를 그만두었다가 포켓볼을 접하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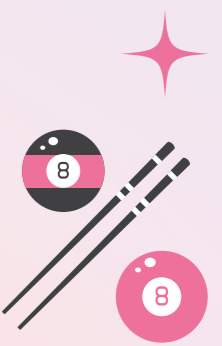
올해로 당구와 함께한 지 20년이 됐다는 하민욱 선수. 그는 지금도 여전히 당구가 좋아서 연습이 재미있다고 훈련을 즐기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을까. 하민욱 선

수는 1년 넘게 포켓볼선수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선수생활 13년 차. 최솔잎 선수는 당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권유로 당구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당구가 재밌었다는 최솔잎 선수.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대회에 출전했을 만큼 당구를 향한 열정도 대단하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했던 90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어 너무 속상했다. 그녀의 마음을 알았을까. 대회 하나가 일정이 미뤄진 덕분에 그녀는 출산 후 91일이 되자마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최솔잎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2관왕 등 출산 전후 출전한 대회에서 모두 입상했다. 그녀의 강점은 '집중력'인데, 지난 2023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그 강점이 빛을 발했다. 첫 경기에서 강팀을 만난 하민욱, 최솔잎 선수는 접전 끝에 9번 공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에 놓였다. 결정적인 순간 하민욱 선수가 9번 공을 넣지 못했고, 승리의 열쇠가 상대편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웬걸, 상대편도 그 공을 처리하지 못해 최솔잎 선수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사진 대한당구연맹 제공



“수구”는 쿠션에 붙어 있고, 수구와 적구²⁾ 배열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의 집합체였어요. 그걸 최솔잎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 해결한 거예요.”

최솔잎 선수가 정말 자랑스러웠다며 그때를 회상하는 하민욱 선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연습 벌레들의 계속되는 도전

이제는 눈빛만으로 서로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하민욱, 최솔잎 선수. 이진 팀이 성적을 내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엄청난 연습량이다.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다 보니 따로 연습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아 그들만의 연습실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그날 어떤 연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었지만, 이제는 나름의 규칙을 정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각자 2~3시간씩 집중해서 훈련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두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거죠. 그 외의 시간은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편하게 하는데 그렇게 13~14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두 사람을 더욱 연습 벌레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 채문철 감

독이다. 채문철 감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로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위치한 연습실을 방문해 두 사람이 놓친 부분을 알려주며 혹여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매번 확인한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게 했다.

최솔잎 선수의 올해 목표는 국제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회가 재개되고 있어 큰 무대에서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그런데 국제 대회에 출전하려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드는데, 포켓볼은 당구의 다른 종목에 비해 지원이 많지 않아 어렵다고 한다. 자신을 비롯해 많은 선수가 해외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포켓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하민욱 선수의 목표는 50세까지 랭킹 1위를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 최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두 사람에게 포켓볼의 매력이 뭐냐고 묻자 '재미'라고 입을 모았다. 누구나 쉽게 한번 해봐도 될 만큼 규칙이 단순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꼽았다. 가족, 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포켓볼의 매력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바란다.

1) 수구(手球) : 영어로는 '큐볼(cue ball)'이라고 하며, 큐가 닿는 공, 즉 샷을 하는 사람이 큐로 맞히는 공을 뜻한다.
2) 적구(的球) : 목적구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오브젝트 볼(object ball)' 즉 맞혀야 하는 공을 가리킨다.

2024

부산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전 세계 테니스 스타들 모였다



대회개요

대회명 : 2024 부산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개최 기간 : 2024. 4. 7.(일)~2024. 4. 14.(일)

주최 :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대한테니스협회

주관 : 부산오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후원 : 부산광역시

BUSAN OPEN 2024 CHALLENGER TOUR TENNIS



단식 준우승 홍성찬 선수



복식 우승 남지성 선수

사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제공

지난 4월 7일(일)부터 14일(일)까지 금정체육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2024 부산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1999년 국내대회 개최 후 올해로 24주년을 맞는 '부산오픈'은 세계 남자챌린저대회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속하는 챌린저 125급 대회다. 대회에서는 총상금 16만 4천 달러(약 2억 2천만 원)를 두고 국내 9명, 해외 95명 등 총 30개국 104명의 프로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인 홍성찬을 필두로 정윤성, 이재문, 남지성, 권순우, 송민규 등 6명이 모두 출전했다.

7일(일)부터 8일(월)까지는 남자 단·복식 예선전, 8일(월)부

터 13일(토)까지는 본선을 치렀으며,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개의 경기가 치러졌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단·복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14일(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지성 선수가 레이호 선수와 조를 이뤄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정윤성 선수는 쉬위슈 선수와 조를 이뤄 복식 준우승을, 홍성찬 선수가 단식 준우승을 각각 거두었다.

성황리에 마무리 된 이번 대회는 부산 시민들에게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으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 1호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7개 해수욕장,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개최

지난 4월 21일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을 비롯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파도 소리를 배경삼아 맨발로 백사장을 걷고, 건강도 회복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대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부산,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및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성료

비가 추적추적 내린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과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에는 무려 2,25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행사장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을 비롯해 맨발부산운동본부 명예본부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공동본부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운수 교육감, 부산광역시체육회 신현기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시민들에 안전에 유의해 챌린지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바르게 걷기와 몸풀기 스트레칭 특강'을 시작으로 해운대 백사장 1.5km를 왕복, 총 3km를 맨발로 걷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첫 번째 해운대 백사장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맨발 걷기 구간 조성사업

어싱(Earthing)이란 맨발로 걸음으로써 지구와 접촉하는, 즉 인간 본연의 상태를 체험하는 활동을 뜻한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불면증 완화, 면역력 증가 등과 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햇볕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 우울증 완화 등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앞으로 있을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시민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경험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어질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바다도시 부산'을 알리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해왔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일곱 곳의 멋진 해수욕장을 가진 부산에서 맨발걷기 좋은 도시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면서 "맨발걷기 친화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공원, 산림, 해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어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는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과 활력을 다지는 행사로, 이후 광안리, 대대포, 송정 해수욕장 등지에서도 잇달아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 부산일보사 제공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미리보기

스포츠 경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은 창의적인 발상의 다양한 이벤트와 친환경을 고려한 경기장 등으로 올림픽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ARIS 2024



센강 위에서 열리는 개회식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파리가 세계 각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에펠탑, 앙발리드, 그랑팔레 등 도심 곳곳의 유서 깊은 명소가 각 건물의 특색에 맞는 경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개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전 올림픽에선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개회식은 파리 도시의 중심이자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센강을 따라 열리게 된다. 개회식이 경기장 바깥에서 열리는 경우는 120여 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정된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만 직접 볼 수 있었던 개막식을 센강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림픽 전용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센강에서 수상 행진을 하며 입장한다. 선수단을 태운 94척의 배는 파리 동쪽 오스테리츠 다리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6km 거리를 이동하여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한다. 선수들이 탑승한 배와 함께 곡예사, 수상 교향악단, 댄서 등이 강을 따라 이동한다.

선수단을 태운 배에는 TV와 인터넷 미디어 중계를 통해 시청자가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장착된다.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80개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개막식의 환상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

개막식 메인 행사는 선수들이 도착하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열린다.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에펠탑 사진을 찍기 위해 들르는 명소다. 성화 채화식도 이곳에서 열릴 계획이다.

[참고자료]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olympics.com/ko/paris-2024)

◀ 요트경기장 © Paris 2024 Florian Hull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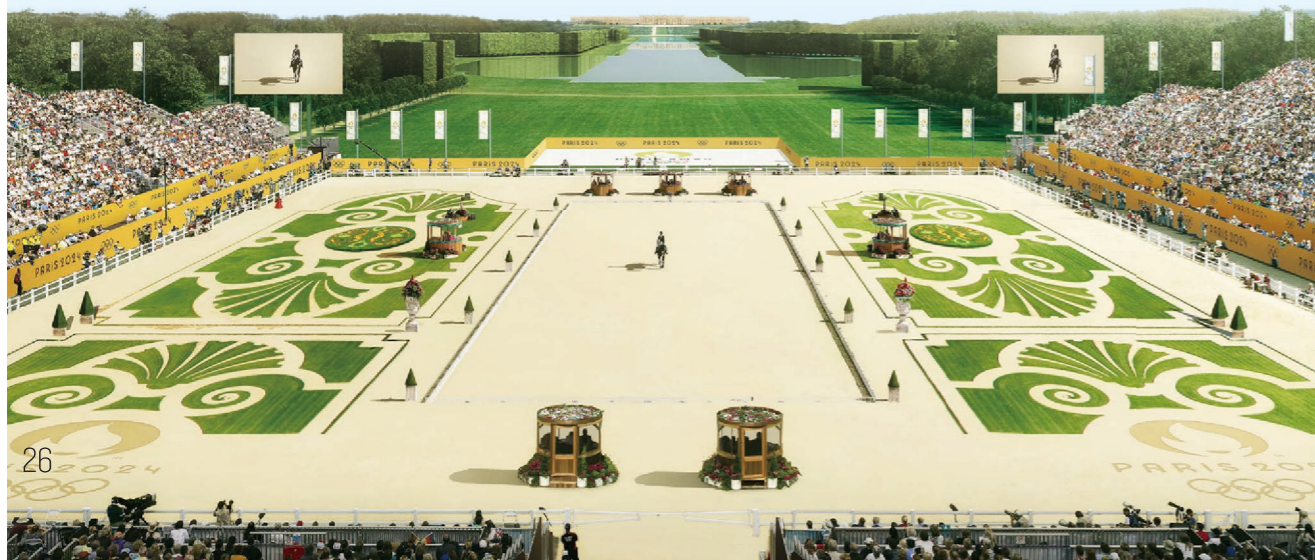
파리 명소에서 세계적 명승부를 관람

개막식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가 기존 경기장을 벗어나, 파리 중심부에서 개최된다. 광장, 정원, 공원, 경기장, 학교 운동장, 트로카데로, 호텔 드 빌, 파르크 데 라 빌레트 등 프랑스 전역에 있는 주요 명소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것. 도시 전역에서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전 올림픽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관전 포인트이다.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린다. 천장이 없는 경기장이라 선수와 관중 모두 경기 중 고개만 살짝 들어도 에펠탑을 볼 수 있게 설계됐다. 파리 군사학교 앞으로 가면 유도·레슬링 경기장 '그랑 팔레 에페메르'가 나온다. 이 건물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인 '그랑 팔레'를 본떠 만들었다. 진짜 '그랑 팔레'에서는 태권도와 펜싱 경기가 열린다. '그랑 팔레'는 파리의 중심가의 120년 역사를 가진 철제 건물로 각종 박람회와 미술 전시가 열리는 복합전시공간으로 예술의 도시 파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금빛 돔으로 빛나는 앵발리드 앞 잔디 공원은 양궁 경기장이면서 마라톤 경기의 완주 지점이기도 하다.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은 마라톤의 코스뿐 아니라 승마와 근대5종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의 파리생제르맹(PSG)의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 축구의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낙점되어, PSG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것이다.

▼ 베르사유 궁전의 승마경기장 © Paris 2024 Florian Hulleu



메달리스트와 팬들이 함께 축제를

에펠탑 바로 밑, 트로카데로 광장의 '파르크 데 샹피옹'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만나며 그들의 놀라운 업적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매일 전날의 메달 수상자 시상식을 볼 수 있으며, 선수들은 퍼레이드에 초대되어 대중을 만나고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그날의 주요 경기 순간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 파르크 데 샹피옹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연과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려 스포츠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재탄생한 역사적인 장소들도 이번 올림픽의 화젯거리다. 18세기 곡물거래소, 19세기 원자재 상품거래소, 20세기 파리 상공회의소로 쓰인 '부르스 드 코메르스-피노 컬렉션'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의해 2021년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파리 센강 풍네프 다리 앞에는 150년 된 사마리텐 백화점이 15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이 운영하는 이 건물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멋진 자태를 뽐내, MZ 세대들이 인생 샷을 찍기 위해 몰려든다.



①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 설치되는 비치발리볼 경기장 조감도
 ② 트리아슬론 경기장
 ③ 체조경기장
 ④ 올림픽 선수촌
 ⑤ 트로카데로에 위치한 파르크 데 샹피옹
 모든 사진 © Paris 2024 Florian Hulleu



최대한 덜 짓는 '친환경' 올림픽

역대 올림픽 개최지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려 대대적인 토지 개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파리는 '최대한 덜 짓는 것'을 목표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 쓰여질 올림픽 경기장의 95%는 위의 예처럼 이미 존재하는 시설이다. 새로 지어질 경기장과 시설도 대회 후 재활용을 위해 철거에 용이하게 설계됐다.

또한 이번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아디다스 아레나(Adidas Arena) 등 두 곳의 경기장은 1만 1,000석에 달하는 관중석을 모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 이 관중석을 만들기 위해 100톤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며, '공유'와 '개방'의 정신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 올림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견인하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최근 테니스장 전국 최초로 '쿨링포그'를 설치해 부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며 운영해 나가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만나보았다.

Q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2016년 11월 리모델링 후, 전국 최대 규모의 개폐형 실내테니스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산 시민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사무국장 1명과 행정직원 1명, 시설직원 1명, 파트타임 1명, 개인레슨 지도자 3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클럽 406개, 개인레슨 1,866명, 일일입장 12,475팀이 이용하였습니다.

Q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의 시설과 레슨 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10개의 인조잔디 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코트는 레슨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외테니스장과 달리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1:1 개인레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테니스협회 공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실력 있는 지도자가 주 4일(월·목·화·금) 06:00~22:00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 또한 사설 테니스장과 비교하여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며 아쉬운 점으로 '시설'을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시민들의 관절 건강을 고려하여 고급 인조잔디 코트를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온도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전국 테니스장 최초로 설치하여 특히나 자랑스럽습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일어나는 모래 먼지를 최소화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도포하고, 샤워실 및 휴게실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실내테니스장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예약 및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최근 테니스 종목의 인기가 올라가며 MZ 세대의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MZ 세대의 수요에 발맞춰 2023년 8월부터 금요일마다 기존 06시부터 22시까지의 운영시간을 익일 02시로 연장 운영하여 이용객을 늘렸고, 홈페이지 인터넷 결제를 통한 예약시스템으로 필요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비를 줄였던 것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Q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의 운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공정성과 안전입니다. 부산시 소유의 공공체육시설로서 부산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이니만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태하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사무국장

Mini Interview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지속적인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운동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부산광역시 테니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전문체육 육성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 테니스 종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생지 부산을 꿈꾸다!

부산맨발걷기좋은 도시운동본부

전국 각지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부산은 천연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7개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부산을 맨발 걷기 성지로 만들고자 포문을 열었다. 그 중심점의 역할을 다하고자 출범한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를 만나 보았다.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 만성 통증 완화, 호르몬 불균형 개선, 다이어트 등의 효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산과 공원 곳곳에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대모산을 포함해 대전 계족산은 14.5km에 달하는 황톳길을 만들어 맨발걷기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맨발걷기에 관한 조직을 갖춰 정책이나 환경 변화를 이끌 구심점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산 지역 대표 언론인 저희 부산일보와 함께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BNK금융그룹 등이 뜻을 모아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단체(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맨발학교, 부산걷는길연합, 레일코리아 등)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4월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과 함께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접수 일주일 만에 2천 명이 신청하는 등 선풍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행사를 기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2천 명이라는 인원이 참가할지 의문이었던거거든요. 기우와는 달리 접수를 시작하자 반응이 뜨거웠고, 문의 전화도 상당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2천 명의 참가자에게만 기념품을 드릴 수 있어 접수를 조기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참가 의사를 내비치는 시민분들이 매우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200여 명의 참가자를 추가 받기로 했는데, 공지한 접수 시각보다 2~3시간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등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이런 대회를 많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 당일엔 굶은 날씨였습니다. 대회 진행에 차질은 없었나요?

날씨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까 행사 일주일 전부터 틈틈이 날씨 확인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굶은 날씨와 관계없이 현장에는 많은 참가자분들이 오셨고,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븐 비치 어싱 챌린지는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데요. 특별히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대회를 기획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맨발로 땅을 딛고 오롯이 지구와 접촉하는 것을 '어싱(earthing)'이라 합니다. 특히 파도가 치고 빠지는 촉촉한 모래 위는 어싱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 염분과 수분이 풍부한 바닷가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것을 '슈퍼 어싱(super earthing)'이라고 하여 부를 정도죠. 부산은 천혜의 자연 '바다'와 제각기 특별한 7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맨발걷기 모임은 산이나 공원에 조성된 황톳길이나 흙길에서 진행되는 것도 슈퍼 어싱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그에 비해 부산의 해수욕장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해수욕장 모래사장 안에서 이동하기에 안전 우려도 적습니다.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죠. 그렇기에 맨발걷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부산일보사 제공

남은 6개 해수욕장에서도 차례대로 챌린지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첫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분들께서 더 편하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고령자들의 니즈에 따라 온라인 말고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걷기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 놀거리를 융합한 행사 마련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가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은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시설 마련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영구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나아가 바다 환경을 생각하는 해변 청소라든지 대한 부분까지 챌린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앞으로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부산은 맨발걷기에 관한 지자체의 관심, 조직화, 행사화 등의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의 맨발걷기 참가자 분들이 저희 본부를 만나면 '부산만큼 맨발걷기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데가 없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는 7개의 대형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부산을 '맨발걷기의 성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맨발걷기를 즐기고, 건강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7개 해수욕장 전부 맨발걷기를 해보는 챌린지도 진행되지 않을까요. 맨발걷기가 부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에는 땅피산 등 지역별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 부산바다와 부산내륙을 연결한 코스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플랜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맨발걷기좋은 도시운동본부 홈페이지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 일정

2024년	2025년
4월 해운대해수욕장 (완료)	송도해수욕장
6월 광안리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9월 다대포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11월 송정해수욕장	(상세 일정 추후 공지)

인터뷰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김진수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2~3년 전부터 맨발로 걸으면서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부산에서는 작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산일보는 지난해 부산에서 불고 있는 맨발걷기 열풍을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뤘고, 부산시의회에서는 올 2월 맨발걷기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은 도심에 훌륭한 해수욕장을 7곳이나 갖춰 맨발걷기에 가장 좋은 자연 인프라를 보유한 대도시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삼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등의 기관과 BNK금융그룹이 함께 부산교 부산맨발걷기좋은도시운동본부를 만든 것은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이라는 바탕 위에 부산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기에 좋은 새로운 매개체가 '맨발걷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각 기관·단체의 마음이 모아진 덕분입니다. 해운대에서의 첫 맨발걷기 행사를 계기로 맨발걷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초고령화 도시 부산의 시민 건강을 더 증진하고, 부산의 이곳저곳을 맨발로 걷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의료, 학원까지 생활 곳곳에서 할인 행기는

'부산체육사랑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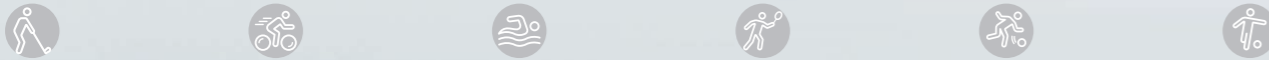
글 _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심승민

지난여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부산체육사랑카드를 부산은행과 함께 출시했다.

스포츠 향유의 보편적 권리뿐만이 아닌,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BNK부산은행_부산체육사랑카드 QR코드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중요성은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좀 더 정적인 생활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식사 방식이 바뀌고,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며 건강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현대사회에서 건강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며 스포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런 이들에게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이며 전문 선수뿐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카드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정한 부산광역시 내 체육시설에서 이용금액의 10% 최대 1만5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료, 학원, 건강식품 등 월간 통합 할인으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의 도시지만,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스포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산체육사랑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은 부산광역시 내 다양한 체육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정체육시설 현황을 통해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된 요금으로 체육시설, 스포츠 업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건강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할인 혜택, 적당한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건강식품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에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 업종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최적의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 현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편결제와 편의점, 커피숍까지 할인 혜택 대상에 포함되므로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체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카드가 아닌, 모든 생활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부산체육사랑카드는 부산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체육계와 금융계가 함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카드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부산체육사랑카드의 다양한 혜택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부산의 다양한 기업들은 부산체육사랑카드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기업에게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를 극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체육사랑카드는 지역 기업과 스포츠 비즈니스가 협력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은행과 함께 '부산체육사랑카드' 사업을 통해 모든 혜택을 연회비 1만 원으로 제공하여 지역 시민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다양한 문화와 체육시설을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체육사랑카드, BNK부산은행 모든 지점 방문 가입/인터넷 가입/스마트폰 가입 등을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다.

부산체육사랑카드 상품서비스 및 이용 안내

구분	상세내용	제공조건	할인율
부산시 체육시설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공공/민간 체육시설	월 할인한도 최대 1만5천원	10%
스포츠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월 2회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의료	병원/약국 업종	월 2회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학원	학원 업종	월 2회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건강식품	홍삼/인삼/건강식품 업종	월 2회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생활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월 2회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 '검도'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검도대회

글 _ 제4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박은지



검도는 화랑도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체력 증진에 목적을 둔 스포츠로서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신체적 민첩성을 기르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예'를 중요시하는 운동이기도 해서 인내심과 자제력을 기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외국인분들도 검도의 매력에 빠져 경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검도대회가 열렸습니다. 6일(토)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여자부 중학생 개인전, 단체전 순으로 7일(일)은 중학생, 고등학교, 일반부, 장

년부, 노년부 개인전과 단체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검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집중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검도의 경기규칙은 총 5분의 경기 시간이 기준이고 연장전은 3분이 주어집니다. 3판 2선 승부가 원칙이고 경기 시간 내에 유효격자를 두 판 먼저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유효 타격 부위는 머리, 손목, 목, 허리 부위이고 머리부위는 귀로부터 상부의 좌우 머리, 손목 부위는 호완의 오른 손목 부분, 목 부위는 목 전체입니다. 경기 시간 내에 승패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연장전을 실시하고 먼저 한판을 얻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스포츠에서 반칙은 허용하지 않는 사항인데요, 검도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상대의 발을 걸거나 차는 행위,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내는 행위 경기 중에 장외로 나가는 행위 등 반칙을 두 번 하게 되면 상대에게 한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동시 반칙하는 경우 상쇄해서 반칙을 없던 것으로 합니다. 심판이 양쪽 편에서 주의 깊게 승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5분의 경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도 흥미를 가지고 대련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많은 수련과 훈련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린 학생들은 경기 중간에도 쉬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회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연습이 되고 충분한 수련의 시간이 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검도에 대한 애정이 변치 않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검도대회를 관람하는 것도 좋고 또는 직접 검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검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검도수련학원에서 수련을 한 초등남자 저학년부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배운 검도가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해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회 장소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정에는 벚꽃이 한창이었는데 각지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검도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뽐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맨십으로 즐기는 라운딩

골프

따사로운 내리쬐는 태양 아래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라운딩을 즐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푸른 잔디 위에서 공을 퍼팅해 홀 안으로 쏙 넣었을 때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골프에 대해 알아보자.

GOLF

골프의 역사

다수의 홀이 갖춰진 경기장에서 정지된 공을 골프채로 쳐서 홀에 넣는 스포츠인 골프. '치다'라는 뜻의 스코틀랜드어 Gouft(고프)에서 Golf(골프)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본다. 초창기에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에서 골프를 쳤지만 이후 인공적 형태의 코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골프는 15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1575년 스코틀랜드의회는 군사들이 골프에 너무 열중해 국방을 위한 활쓰기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골프의 열기는 점점 활성화되어 왕후와 귀족들까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1754년 22명의 귀족이 모여 세인트앤드류스 골프클럽(Saint Andrews Golf Club)을 형성하였고,

1834년 윌리엄 4세가 이 클럽에 로열앤드에이션트 골프클럽(Royal and Ancient Golf Club)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다. 로열앤드에이션트 골프클럽은 영국 전역의 골프클럽을 통합하였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13개 항목의 골프 규칙이 성문화되었다.

19세기 중반 무렵 전 영국 오픈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골프는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성행하였다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한국 등지에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1990년 파리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었던 골프는 이후 모습을 감춰다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남녀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가 진행된다.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 골프는 두 선수가 승부를 겨루는 '매치 플레이'와 소요된 총 타수를 카운트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등 두 가지 토너먼트 방식이 있다.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스트로크 플레이로 4일간 18홀을 돌며 4라운드를 진행, 총 72홀에서 승부를 겨룬다.

골프 정신,

바비 존스의 스포츠맨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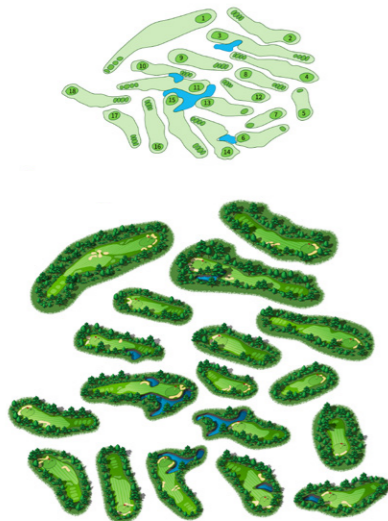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심판이 없다. 프로 스스로 스코어를 기록하는 만큼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즉 정직과 매너가 되는 스포츠다. 이런 골프의 정신을 지키며 골프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프로가 있다. 근대 골프 역사의 천재로 불린 미국의 '바비 존스(Boby Jones)'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25년 US 오픈 최종 승자를 가리는 18홀 연장전이 한창이던 때, 바비 존스는 11번 홀에서 경기하던 중 그가 친 공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러프로 굴러 들어갔다. 다행히 공을 다시 페어웨이로 올리기에 는 무리가 없어 다음 샷을 치기 위해 자세를 취했는데, 그만 공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존스는 즉시 경기 진행요원을 불러 자신에게 벌타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위해 즉시 회의를 열고 현장을 목격한 갤러리를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공이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이 없었다. 결국 경기위원회는 존스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는데, 존스는 규정대로 스스로한테 두 개의 벌타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한 타 차이로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존스의 스포츠맨십은 많은 골프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훗날 미국골프협회의 스포츠맨십상은 그의 이름을 따 '밥 존스상'으로 제정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골프 기초 상식

골프 코스와 스코어



골프 코스

- 코스는 18홀로 구성: Par3홀(4개), Par4홀(10개), Par5홀(4개)
- Par○홀이면 ○번 만에 공을 홀에 넣어야 함
- 기준 타수는 총 72타. 72타로 치면 '이븐', 72타보다 적게 치면 '언더파', 72타보다 많이 치면 '오버파'

골프 스코어

- 각 홀에서 기준 타수만큼 공을 넣으면 점수는 '0'
- 기준 타수보다 적게 넣을수록 우승

점수 표기	-3	-2	-1	0	+1	+2	+3	+4
명칭	알바트로스	이글	버디	파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 골프장은 왜 18홀일까

골프 코스는 9홀, 27홀, 36홀부터 많게는 72홀이라는 대규모 코스도 있다. 하지만 골프 기본 코스는 '18홀'이다. 1~9번 홀은 아웃코스, 10~18번 홀은 인코스라고 칭한다. 골프 코스는 처음부터 18홀이 아니었다. 골프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초기 골프장들을 보면 3개홀부터 25개 홀까지 제각각이었다. 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남은 땅에 골프를 하다 보니 홀의 개수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명한 세인트앤드류스 골프장도 처음엔 11개 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아웃코스도 돌아 인코스까지 왕복하며 총 22개 홀을 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중 4개의 홀은 길이가 짧아 골프 재미를 감소시킨다고 하여 기존 홀을 통합시켜 1764년 18홀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골프 규칙 제정을 통해 18홀로 통일되었다.

골프 필드와 용어

GOLF



명칭	장소설명
1 티잉 그라운드 (Teeing Ground)	라운드마다 첫 타를 치는 장소이자 Tee Box가 있는 곳
2 페어웨이(Fairway)	Tee Box에서부터 그린까지 연결된 길로 공을 치기 좋도록 잔디가 잘 다듬어진 곳
3 러프(Rough)	페어웨이 가장자리 부분으로 풀과 나무가 있는 곳
4 bunker(Bunker)	모래로 구성된 장애물로 움푹 패여진 곳
5 해저드(Hazard)	모래 풀로 이루어진 웅덩이, 연못과 호수 등 장애물이 있는 곳
6 OB(Out of Bounds)	플레이 금지구역
7 그린(Green)	Hole이 있으며 퍼팅하도록 잔디가 가장 정리되어 있는 곳

골프클럽의 종류



그립 (Grip)
손잡이 부분으로 주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짐. 교체 주기는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나 미끄러운 느낌이 들 때 교체

샤프트 (Shaft)
클럽헤드와 그립을 연결하는 부위로 클럽의 중량과 구질에 영향을 줌

헤드 (Clubhead)
클럽의 머리 부분으로 공을 치는 부위



드라이버(Driver)

클럽 중 가장 길이가 길다. 비거리도 제일 멀리 나가는 것이 특징으로 프로 선수의 경우 300m 넘는 샷이 나온다. 유일하게 티 위에 공을 올려두고 샷을 하는 클럽.



우드(Wood)

드라이버 클럽의 축소 버전으로 공을 멀리 보내는 데 사용한다. 드라이버보다 길이가 짧아 다루기 쉽다.



아이언(Iron)

우드보다 짧은 길이로 주로 그린 위에 있는 깃대를 향해 공을 칠 때 사용한다. 헤드의 모양과 크기 및 샤프트의 길이와 강도가 다양하다.



웨지(Wedge)

아이언보다 짧은 길이로 그린 주변에서 공을 홀컵에 가까이 붙일 때 사용한다. 헤드의 모양이 둥글고 무게 중심이 높아 공을 쉽게 띄울 수 있다.



유틸리티(Utility)

'하이브리드'라고도 불린다.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이 결합되어 공을 멀리 보내면서도 다루기 쉬운 우드 대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퍼터(Putter)

그린 위에서 공을 홀컵에 넣기 위해 사용한다. 샤프트의 길이가 짧고 무게가 무거워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공을 정확하게 굴릴 수 있다.



온몸으로 느끼는 스포츠 속 과학 원리



국립부산과학관이 2024년 국립과학관법인 공동특별전 《아우레디(Are You Ready?) :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학관 1층 김진재홀에서 개최한다.

자료·사진제공 : 국립부산과학관



공동특별전 '아우레디(Are You Ready?) :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체활동의 과학적 탐구와 스포츠 속에 숨은 수학 및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3개의 국립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야구, 농구, 축구, 탁구 등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며 ▲움직임의 비밀, ▲스포츠 속 과학, ▲생활과 스포츠 까지 3개 존 37종의 전시물로 채워졌다.

'움직임의 비밀'존에서는 균형을 잡을 때 뇌와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격렬한 운동 중에 체온을 유지하는 몸의 비밀 등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스포츠 선수처럼 점프 높이와 반응 속도를 측정해 보는 전시물로 몸을 풀어본다.

'스포츠 속 과학'존에서는 본격적인 스포츠 체험이 시작된다. 바스켓을 흔드는 농구, 배팅 챌린지로 경험해 보는 야구, 과학적인 슛 체험을 통한 축구,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의 스포츠 탁구까지 다양한 구기 종목을 즐길 수 있다.

'생활과 스포츠'존에서는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위한 생활 체육이 준비돼 있다. 유아용 클라이밍, 장애물 경기장, 사격 슈팅게임, 모두의 골프장에서 온몸으로 스포츠를 즐겨보기도 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포츠 용품과 메타버스 사이클 및 스포츠 게임 등 실감나는 가상현실 스포츠를 통해 첨단과학을 만난 스포츠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입장 시 나눠주는 팔찌형 전자

태그로 체험전시물을 예약하기도 하고 체력 측정 시 근력이나 순발력 등 나의 정보값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도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신체와 운동 속 과학원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관람객을 위해 '움직임의 비밀'존에 대한 '전시해설 미니투어'를 기획하는 한편, 스포츠 소품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시 정보

기 간 2024년 4월 5일~6월 30일

장 소 국립부산과학관

전시장 국립부산과학관 1층 김진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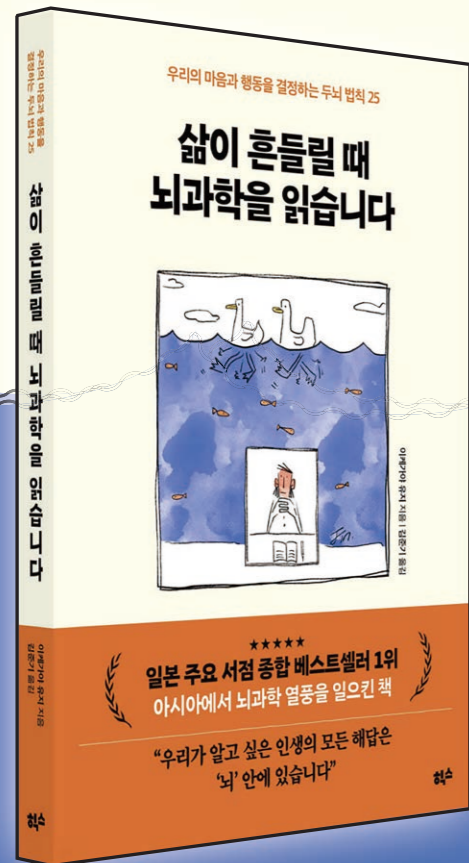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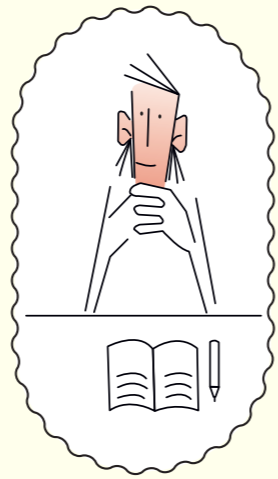
관람시간 및 인원 1일 4회차(09:30, 11:30, 13:30, 15:30) 운영, 110분 소요, 각 회차 250명 입장

* 국립부산과학관 홈페이지 스마트매표소에서 예매 가능

입장료 성인·청소년 6,000원, 유아 3,000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 법칙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저자 이케가야 유지 / 출판사 Hicks



우리가 알고 싶은 인생의

“ 모든 해답은 ‘뇌’ 안에 있습니다. ”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직상 상사 때문에...
 언제나 수많은 핑계로 하루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희미한 죄책감, 그리고 미묘하게 낮아진 자존감뿐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할까?’ 자책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뇌’ 탓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아닌 뇌에 집중해야 합니다.

뇌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보입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비밀에 둘러싸인 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렵고 거부감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뇌 이야기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뇌과학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뇌과학자이자 도쿄대 교수인 이케가야 유지. 그가 쓴 이 책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는 “뇌과학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만 이토록 실용적인 책은 처음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등 주요 서점에서 몇 달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뇌과학은 무엇이 다른 걸까. 이케가야 유지는 뇌를 설명하기 위해 ‘마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 당신을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사소한 고민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것이다. 학업, 직장, 연애, 다이어트 하다못해 심각한 건망증까지 포함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 이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모두 ‘뇌’의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뇌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뇌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일까? 과연 인생의 전부를 맡길 만큼 정말 믿음직한 존재인 걸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숨겨진 뇌의 뒷모습을 파헤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 법칙 25가지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혹시 여태껏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늘 다이어트를 실패할까, 왜 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러 하루를 망치는 것일까’ 하고 괴워했다면 이제는 이 책을 들어 ‘뇌’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자. 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흔들리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시 보일 것이다. 사는 게 힘들수록 마음이 아닌 뇌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인생의 모든 해답은 뇌 안에 있다.

BSC SPORTS NEWS

Busan Sports Council

2024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 동호인 1,700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4 부산시민자전거대회'를 지난 4월 6일(토)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개최한 「2024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부산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족단위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코스로 나뉘어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부산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보급이 활성화되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 부산광역시체육회 방문

국제 스포츠도시 부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부산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 방향성 및 지원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지난 4월 18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방체육회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2025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및 지원, 학생 선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장미란 제2차관은 부산광역시체육회관과 스포츠과학센터를 시찰했다. 체육회관에서는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훈련 중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들을 격려했고, 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전문선수의 트레이닝과 기량 향상을 위한 과학적 지원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의 방문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체육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의 방문을 통해 지방 체육의 실정과 앞으로 지방체육회가 나아갈 방법에 대해 강구하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에게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5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6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19일(금) 부산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5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 대회'를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59개 클럽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부산시민게이트볼대회는 부산지역 게이트볼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결과는 우승팀은 부산진구 초연팀이며, 최우수 선수상은 부산진구 김상경, 권오숙 선수가 받았다. 참가자 중 최고령참가자가 수상하는 최고 어르신상은 남자부

1930년생으로 만 93세 윤종규(동구) 선수와, 여자부 1937년생으로 만 86세 강순이(동구) 선수가 받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맞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육활동으로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부산생활체육인 1,350여 명 35개 종목 출전

지난 4월 25일(목)부터 나흘간 울산시 일원에서 열린 생활체육인의 축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축전에 시에서는 1,350명(임원 172명, 선수 1,178명)이 35개 종목에 출전했다.

전문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취지로 개최돼 시·도 간 종합순위는 별도로 공표하지 않지만, 부산은 각 종목별로 고루 높은 성적을 거뒀다. 국학기공·그라운드

골프·배드민턴·수중핀수영·우슈·체조 등 6개 종목에서는 준우승을, 수영·스쿼시·육상·철인3종 등 4개 종목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상임부회장은 "화합과 축제의 장인 대축전에 출전한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라며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부산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발대식 및 회장 취임식

4월 24일(수) 부산코모도호텔에서 '부산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발대식 및 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중구청장, 중구의회의장,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내빈소개, 인준서 수여식, 회장 취임사, 내빈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케이크 커팅식과 건배 제의를 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속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서구체육회
제35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참가

4월 19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개최한 제35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에 서구대표 선수 3개 팀 21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선수 중 일부는 서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교실 사업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았으며, 그 결과 해송팀은 본선 32강에, 구덕·암남팀은 본선 16강에 진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4년도 생활체육교실 파크골프 운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 부상 위험이 적고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스포츠로 파크골프가 주목받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체육회는 생활체육교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파크골프 교실을 선보였다. 파크골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원과 골프가 합쳐진 현대 스포츠로 짧은 홀과 간단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 친근하고 쉽게 배워볼 수 있다. 파크골프를 경험해보고 싶거나 그 외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싶은 부산진구민들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로 문의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 리틀마린스 야구단 운동용품 지원

4월 23일(화) 2024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스포츠 꿈나무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동용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래구체육회는 매년 운동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화명생태공원 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운동용품 전달과 따뜻한 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야구 꿈나무들에게 야구공, 야구배트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부산체육을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하는 바램이다.



동구체육회
2024 동구골프협회장배 스크린대회

부산동구골프협회는 4월 13일(토) '2024 동구골프협회장배 스크린대회'를 개최하였다. 동구체육회 황헌선 회장을 비롯하여 강철호 시의원, 동구의회 안종원 부의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를 하였으며 동구골프협회 송주영 회장의 힘찬 개회사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첫 스크린 대회임에도 높은 호응도와 원활한 진행으로 동호인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기결과]

우승	준우승
룡캐리골프클럽	초우회



영도구체육회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영도구체육회는 4월 12일(금) 부산 영도구 함지로79번길 8, 영도실내체육관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재 영도구청장, 영도구의회, 회원종목단체장, 영도구체육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며 이전 개소를 축하했다. 개소식에서는 테이블 커팅식과 풍선 소금 밟기를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 마무리되었다.



남구체육회
제25회 부산광역시남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남구탁구협회는 4월 14일(일)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실내체육관에서 '제25회 부산광역시남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은택 남구청장과 정춘식 남구체육회장이 생활체육진흥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시상하였고 다양한 경품 추첨으로 개회식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탁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북구체육회
2024년 상반기 북구그라운드골프협회장기

북구체육회는 4월 17일(수) 화명생태공원 내 그라운드골프 경기장에서 '상반기 북구그라운드골프협회장기'를 개최하였다. 북구 그라운드골프협회 클럽 회원들이 자리하여 경기를 응원하며,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대회를 통해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화합의 장을 펼쳤으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36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공수도 선수권대회 겸 제6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공수도 대회

4월 13일(토) 대천공원 무대광장에서 '제36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공수도 선수권대회 겸 제6회 해운대구연맹회장배 공수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공수도 선수 150명이 참가하여 멋진 대련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대회는 공수도에서 형(Kata)과 대련(Kumite)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전국에서 모인 공수도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고,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부상자 없이 성황리에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28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전 테니스대회

4월 20일(토) 을숙도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테니스장에서 '제28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전 테니스대회'가 08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되었다. 대회는 금, 은, 동배조 각각 3복식 2선승제로 진행되었고 22개 클럽에서 약 320명 선수들이 출전해 경기를 펼쳤다.

[대회 결과 우승]

금배조	은배조	동배조
다대클럽	동아대클럽	월성 A클럽



금정구체육회

2024년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부회장간담회

금정구체육회는 4월 25일(목),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부회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원 체육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금정구체육회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과 금정구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규원 회장은 "올해도 계획한 일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금정구체육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강서구체육회

2024년 강서구체육회 임원 연수 단합대회

강서구체육회에서는 '2024년 춘계 체육회 임원(이사, 위원) 연수 단합대회'를 4월 18일(목) 전남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임원 연수 단합대회에는 43명(체육회 임원,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죽녹원 탐방길, 메타세콰이어길 트레킹, 거창 차포원 탐방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 단합대회를 통하여 임원(이사), 위원회 위원 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강서체육발전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김재업 회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강서체육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제구체육회

2024년 제28회 연제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

연제구체육회는 4월 28일(일) 배드민턴협회 10개 클럽 동호인 4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연제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결과]

우승	준우승	3위
거성클럽	연제클럽	연신클럽



수영구체육회

2024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4월 18일(목)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2024년도 제1차 이사회 결과 보고 등 및 2024년도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인정 단체 가입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김훈 이사는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부회장으로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임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상구체육회

2024 구민과 함께 낙동강정원 걷기대회

4월 21일(일) 곳은 날씨 속에도 사상구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낙동강정원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삼락생태공원 중앙광장에서 출발해 습지생태원-파크골프장-강들레길-맹꽁이길-야구장-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5km 코스로 진행되었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환경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삼락생태공원의 수양 버드나무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기장군체육회

2024년 무주군체육회 생활체육교류전

4월 27일(토)과 28일(일) 기장군체육회는 무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 교류전이 월드컵빌리지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기장군체육회와 무주군체육회가 자매결연 맺은 지 벌써 7년째 되는 해로, 올해는 총 8종목,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7일은 기장군수 및 무주군수를 비롯하여 동호인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28일 오전부터 각 종목별 운동장으로 가서 체육교류를 실시하였다. 부상자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무사히 교류전을 마쳤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지난 4월 25일(목)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하여 가족과 직장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과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직원 25명이 참여하여 ▲CPR 개요 및 필요성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법 ▲AED 연습용 키트 시연 등의 응급처치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회사에 비치된 AED의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며 “직원 및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산국민체육센터의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도 상반기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교육 진행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과 다양한 댄스를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시작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4월 2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15주에 걸쳐 K-POP댄스(11시~13시)와 수영(13시~15시) 수업이 각각 진행 중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주말체육학교를 연계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통해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도 상반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신나는 주말 학교 밖 프로그램 수영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서구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영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수업을 제공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평소 학업에 지친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체력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서구체육회 주관 신나는 주말 학교밖 프로그램 개강



영도국민체육센터

2024년 4월 개관한 영도실내체육관에서 새로운 수업들이 개강하였다. 특히 넓은 다목적 실내를 활용한 어린이 농구수업은 아이들의 건강과 자세 교정은 물론, 지구력과 체력이 좋아져 부모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잘못된 자세로 기술을 배우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 농구수업에서는 기초체력과 정확한 기본자세를 배울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 5월에도 어린이 농구수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영도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하다.

영도실내체육관 어린이 농구수업 성황리에 개강



부산광역시체조협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체조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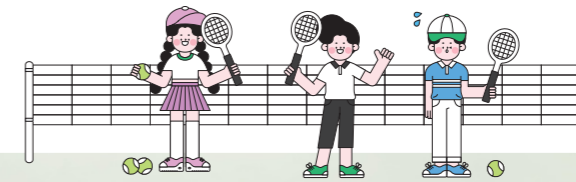


지난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부산선수단 체조팀이 참가했다. 울산현대중공업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조 경기에는 17개 시도 800명이 참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부 생활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가 6연패를 달성했다. 청소년부에서는 슈팅스타가 2위를,

어르신부는 부산광역시동구체조협회와 부산광역시남구체조협회가 참가했고 체조종목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최경훈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대회참가를 통해 부산의 생활체조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가하신 모든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전문선수반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체력측정



4월 19일(금)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전문선수반이 부산스포츠과학센터를 방문해 전반기 체력측정을 실시하였다. 2023년도에 측정된 자료와 비교하여 1년간 성장한 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선수들의 체력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체력측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준비하여 다가오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테니스 전문선수반 선수들에게 많은 기대와 지원을 바란다.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wing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티드 (피규어) 갤러리



어린이왕자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래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동공원 일동미래주 시티



부산향 일동미래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플라자 일동미래주



신장유 일동미래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래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래주



강해 관동동 일동미래주 더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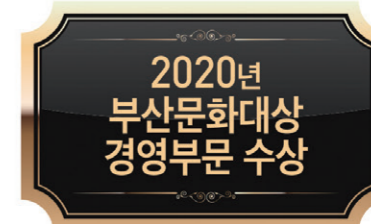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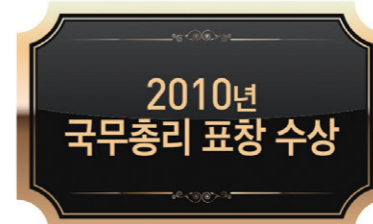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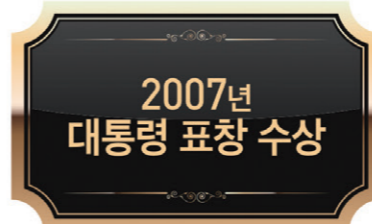
부산 영도 일동미래주



울산 온양 일동미래주



울산 매곡산지구 U-스타시티 일동미래주 더스타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포를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테스트 제공
-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톡톡**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톡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시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기본을 지키는 **바른 금융**
디지털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금융**
모두의 내일을 키워가는 **함께하는 금융**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부산은행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